

자녀 논문 공저자수 139건... 부실학회 나랏돈 펄펄

(미성년)

교육부, 서울대 등 15개 대 조사
미성년 자녀 공저자로 부정 등재 자녀 8명 모두 국내외 대학 입학 '부실학회 출장' 연구부정도 적발



교육부

교육부는 대학 교수의 미성년 자녀의 공저자 등재 현황 전수 조사 결과에 대해 개별 대학의 1차 자체 검증 결과, 총 5개 대학 7명의 교수가 12건의 논문에서 자신의 자녀가 논문 작성에 상당한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공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2017년~2018년까지 두 차례 교수 미성년 자녀의 논문 공저자 현황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한 결과, 2007년 이후 10여년간 총 50개 대학의 87명의 교수가 139건의 논문에서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부정 검증 책임이 있는 해당 연구자 소속 대학에 139건의 논문에 대한 연구부정 검증을 요청했고, 그 결과 교수 자녀 공저자 논문의 약 10% 정도가 연구부정으

로 확인됐다. 대학 자체 검증에서 연구부정이 확인된 대학은 가톨릭대, 경일대, 서울대, 청주대, 포스텍(포항공대) 5개 대학으로 교수 7명이 자녀 8명을 부정하게 자신의 논문에서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경일대, 청주대, 포스텍은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가톨릭대는 해당 교수의 이의 신청에 따라 연구비 지원 부처인 교육부와 과기정통부가 직접 조사를 진행 중이고,

서울대도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징계 등의 후속조치를 밟을 예정이다. 부당하게 논문 공저자로 등재된 교수 자녀 8명 중 6명은 국외 대학에, 2명은 국내 대학에 진학했다. 2015학년도에 학생부종합전형으로 국내 대학에 입학한 청주대 교수 자녀 1명은 입시에서 연구부정 논문이 활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으나, 2009학년도 입학사정관전형으로 국내 대학에 입학한 서울대 교수 자녀의 경우는 논문의 입시 활용 여부에 대해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의 대학에 진학한 학생의 경우, 검증 수행 기관에서 해당 외국 대학으로 연구부정 검증 결과를 통보했다.

교육부는 연구윤리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자문단을 구성해 대학 자체 검증결과를 검토한 결과, 대학에서 연구부정이 아니라고 판정한 127건 중 85건은 검증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 가운데 국가 연구비가 지원된 51건에 대해 연구비를 지원한 과기정통부 등 8개 정부 부처에 통보, 각 부처가 재검증을 하도록 했다.

재검증 결과 최종적으로 연구부정으로 판정되면, 대학에 해당 교수 징계를 요구하고, 국가연구개발비 환수와 참여제한 등의 후속 조치를 밟을 예정이다. 또 해당 자녀의 대학입학에 연구부정 논문이 활용됐는지도 조사해 조치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아울러 지난해 7월부터 미성년 논문 저자의 윤리문제를 교수 자녀에서 전체 미성년으로 확대하고 2년제 대학 교수와 비전임 교원, 프로시딩(정식 출판 논문이 아닌, 학술대회 발표

목적으로 만든 연구논문)까지 그 범위를 확대해 실태조사한 결과 총 56개 대학 255명의 대학 교수들이 410건의 논문에서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등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교수들의 연구부정 사례가 추가로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대표적인 부실학회로 지목된 와셋(WASET)과 오믹스(OMICS)에 90개 대학 소속 교수 574명이 808회 참석한 것을 확인하고 출장비 회수와 연구비 정밀정산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이들 명단을 대학 감사담당 부서에 통보하고 자체 감사를 요청, 452명이 주의·경고 처분을 받았고, 76명은 경징계를, 6명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는 미성년 저자 논문과 부실학회 참여 등 대학 일부 교수들의 연구부정 관련 조사와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하는 한편, 대학 자체조사 등에서 신뢰도가 의심되는 서울대와 연세대, 성균관대 등 15개 대학에 대한 특별 사안 조사를 8월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세종대, 이일형 금융통화위원 초청 특강

중국통상학과서 '중앙은행 역할' 강연



세종대 중국통상학과는 지난달 29일 이일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특강을 진행했다. /세종대

세종대학교는 중국통상학과가 지난 달 29일 이일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특강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평소 거시경제정책에 관심 많았던 60여 명의 재학생이 참석해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일형 금융통화위원은 '거시경제정책과 중앙은행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 위원은 특강에서 ▲거시경제정책이란? ▲중앙은행의 역할 ▲한국

의 현 경제 상황과 거시정책 등의 내용을 자세히 전달했다. /한용수 기자

30대 상장사 연봉 인상률 1위 'SK하이닉스'

작년 26.4% 올라 1위... 평균 7.1% ↑ (아모레퍼시픽 > 카카오 > 삼성물산 순)

시가총액 30대 기업의 작년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전년 대비 7.1%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SK하이닉스의 경우 연봉이 26.4%나 올라 연봉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잡코리아는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순위 상위 30개 기업 중 직원평균급여를 모두 공개한 27개사의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결과 SK하이닉스의 지난해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1억737만4000원으로 전년(8497만9000원) 대비 2239만5000원 증가해 26.4%의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였다. 이어 아모레퍼시픽(22.6%), 카카오(17.9%), 삼성물산(16.7%), SK이노베이션(15.3%) 순으로 직원 연봉이 많이 올랐다.

이들 기업의 지난해 1인당 평균 연봉은 9115만7000원이었고, 이는 전년(8514만5000원) 보다 7.1% 오른 것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전년보다 7.3% 오른 9987만1000원을 받아 평균 연봉 1억

원에 육박했고, 여성은 평균 6630만5000원을 받아 6.2% 인상됐다.

남성 연봉 인상률이 높은 기업은 아모레퍼시픽(18.8%)과 삼성물산(18.6%), SK이노베이션(17.4%), 카카오(16.4%) 순이었고, 여성의 경우 SK하이닉스(28.9%), 아모레퍼시픽(23.9%), 카카오(21.3%) S-Oil(17.0%), 현대중공업(13.0%) 순으로 연봉이 많이 올랐다.

이들 기업 중 연봉 1억원이 넘는 기업은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삼성물산으로 나타났다. /한용수 기자

경희사이버대 대학원 2019학년도 후기 신·편입생 모집

경희사이버대학교 대학원은 13일부터 내달 17일까지 2019학년도 후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전공은 호텔관광대학원의 호텔외식MBA ▲관광레저항공MBA와 문화창조대학원 미디어문화창작전공 ▲문화예술경영전공 ▲미래 시민리더십·거버넌스전공 등 2개 대학원 5개 전공이다.

전형은 서류평가 40%(자기소개서 20%+연구계획서 20%)와 심층면접 60%로 진행된다.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예정)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해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한용수 기자

익명 기부자, 우석학원에 발전기금 1000만원

익명의 독지가가 학교법인 우석학원의 발전을 지원하며 1000만 원을 쾌척했다.

13일 우석대에 따르면, 익명의 독지가는 최근 우석대 진천캠퍼스 미래센터 방문해 장영달 총장에게 학교법인 우석학원 발전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익명의 독지가는 "우석대 개교 40주년을 맞아 진천캠퍼스 발전과 지역인재 양성에 작게나마 도움을 주고자 기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우석대 진천캠퍼스는 충북 진천의 유일한 대학으로 진천과 충북의 지역발전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장영달 총장은 "학교법인 우석학원과 대학을 생각하는 깊은 마음에 감사하다"며 "그 뜻을 소중히 새겨 개혁적 실용주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화답했다. /한용수 기자

'신의 직장' 공공기관 1분기 7000여명 채용

전년비 6% ↑... 올 목표 28% 충족

올해 1분기 공공기관 신규채용이 전년보다 증가한 6918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정부가 예고한 공공기관 신규채용 확대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인크루트가 지난달 2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公示된 '공공기관 신규채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분기 신규채용 인원은 전년 동기 6515명보다 403명(6%) 증가했다.

지난 2월 충남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올 한해 공공기관에서 총 2만5000명의 정규직 신규채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애초 발표한 2만3000명에서 2000명 추가된 규모로 전원 정규직이다.

이에 따라 1분기 채용인원은 올해 목표 채용 인원 대비 28%에 달한다. /한용수 기자

롯데GRS "유소년 학교스포츠 육성 후원"

서울시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지원

롯데GRS가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고등학교 강당에서 '2019 서울시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야구리그 후원식'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롯데GRS 이원택 마케팅부장이 참석해 후원식을 가졌으며, 롯데GRS의 7년간 학교스포츠클럽 후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 받았다.

롯데GRS가 후원하는 서울시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야구리그는 2013년 사기업 최초 협약식 체결 후 매년 100여 개 초·중·고 2000여 학생들이 리그 대회에 참석하고 있으며, 매년 리그 운영비용과 우승팀의 해외 연수 등을 위해 후원 하고 있다.

또한 롯데GRS는 2009년부터 전국 초등학교를 방문해 티볼 강습을 실시하



지난 11일 진행된 후원식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왼쪽)과 이원택 롯데GRS 마케팅부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GRS

는 '롯데리아 찾아가는 야구교실'과 소외계층 유소년을 위한 '롯데리아 야구교실 One 클래스' 등 스포츠 후원 프로그램을 11년째 지속 운영해 오고 있다.

롯데GRS 관계자는 "유소년들의 건강 증진과 심신 단련을 위해 서울시와의 업무 협약 체결 이후 7년째 리그 후원으로 학교스포츠 발전에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박민용 기자 parku7854@